

진보교육감 '교원징계·학업평가' 반대

16개 시·도 교육감 설문조사

교육정책 싸고 마찰 불가피

장희국 광주시 교육감 당선자와 장만체 전남도 교육감 등 진보성향 교육감은 정당 가입 교원 징계, 학업 성취도 평가, 자율형 사립고와 특수목 적고 등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5월 16개 시·도 교육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진보성향 교육감들은 정당 가입 교원 징계와 학업성취도 평가 등을 반대해 교육정책을 둘러싼 마찰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자율형 사립고에 대해선 광주·

설문조사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 전북·서울·강원 등 5곳 교육감은 정당 가입 교원의 징계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다.

서 의원은 특히 "광주시의 장희국 당선자의 경우, '정당 가입 교원 징계 처리'에 전적으로 반대하는 것을 넘어 '정치적 자유 보장'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 혐의 제7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65조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원평가제와 수석교사제에 대해서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석교사제의 경우 광주교육감 당

선자는 대폭 축소, 전남 및 전북교육감은 축소를 주장했으며 교원평가제의 경우 광주·전남·서울·전북교육감이 모두 반대를 표시한 반면, 경기교육감만 '확대하겠다'고 응답했다.

서 의원은 또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 "16개 시·도 교육감 모두 '대폭 확대' 또는 '확대' 입장을 밝혔다"며 "예산확보 문제를 별론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정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와 함께 "교육의 방향이 완전히 뒤바뀌어 학교현장이 대립과 분열로 치닫게 되면 결국 피해는 교원·학부모·학생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교부와 시·도 교육청 간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야구장 건립 시민의견 듣는다

市·시민추진위 오늘 공청회

광주시가 새 야구장 건립 방안과 관련 본격적인 시민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5일 광주시와 '야구장 건립 시민추진위원회(이하 시민추진위)'에 따르면 6일 오후 2시 광주시 서구 5·18 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바람직한 야구장 건립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공청

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시민추진위는 지난 3월 17일 발족해 ▲무등경기장 리모델링 ▲도심 외곽 독구장 건립 ▲도심 외곽 개방형 야구장 건립 등을 논의해왔으며, 지난달 16일 최종보고서를 내고 야구장 부지는 무등경기장을 포함, 접선성과 비용 등을 고려해 선정하도록 제안한 바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

지자체 무분별 호화청사 제동

행안부, 인구에 맞춰 면적 제한

역시 인구 200만 미만 광역시·도 각각 5174㎡, 9878㎡ 등으로 제한된다. 전남도내 내 군청은 10만명 이상인 곳 1만1829㎡, 3만명 미만인 곳 7525㎡, 광주시 각 구청도 광주시는 15만~50만명 미만 1만4061㎡, 인구 10만~15만명 미만이면 1만2020㎡ 내로 지어야 한다. 현재 광주시청(시의회 포함)과 전남도청의 총면적은 각각 8만7072㎡, 7만9305㎡(본청 6만4782㎡, 의회동 1만4523㎡)로, 광주시청과 전남도청은 개장 당시에 규정하고 있는 4만2737㎡과 4만8967㎡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日만정

- 김종우



죽으나 사나 짚어지고 가셔야...

광주시 탄소배출권

1만8924t 모의거래

광주시가 지난달 29일부터 3일간 실시한 탄소배출권 모의거래에 모두 67개 기업·기관이 참여해 1만8924t(5억1800만 상당)의 탄소배출권을 거래한 것으로 집계됐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광주 그린액션 협약을 맺은 기업체·

대형마트·공공기관 등이 참여해 올 1·4분기 탄소배출량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 감축량과 초과량을 모의거래한 결과 67개 참여 기업·기관 중 32곳이 탄소배출량을 감축했다.

반면 35곳은 생산설비 증설 및 생산량증가 등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 이를 기업·기관이 탄소배출권을 적극적으로 매수하면서 거래가가 t당 37% 상승한 3만100원에 마감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고접수안내 ☎ 227-9600
FAX 227-9500

판결공시

시민번호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9 고정 176
주거침입

피고인 : 서재용

위 피고인은 주거침입죄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0년 6월 30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사 고상영

상속한정승인공고

광주지방법원 가평지원
사건번호 : 2010-00-000-000
사망자 : 이철우(661-220-1622511)

최후주소 : 광주 북구 양화동 547-1 이화빌 10305

등록기준지 : 광주 북구 용봉동 1074-6

위 광주우의 상속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 제 1032조(제권자에 대한 광고·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광고판, 신고기한(광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제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10년 7월 6일

• 공고인 : 이경암

• 현행승인수리일 : 2010년 6월 1일

• 공고기간 : 2010.07.06 ~ 2010.09.06

• 신고처 : 광주 북구 신용동

신용주공 APT 105-505
이강우(010-6424-2109)

상속한정승인공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사건번호 : 2010-00-000-000
사망자 : 유인식(660-021-1644218)

최후주소 : 전남 함평군 학교면 마산리 366

등록기준지 : 전남 함평군 관산면 삼산리 570
위 광주우의 상속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 제 1032조(제권자에 대한 광고·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광고판, 신고기한(광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제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10년 7월 6일

• 공고인 : 김정호

• 현행승인수리일 : 2010년 6월 3일

• 공고기간 : 2010.07.06 ~ 2010.09.05

• 신고처 : 전남 함평군 학교면 마산리 356
김현기(010-6790-8978)

since 1985. CH중국문화원 | 광주분원
침·뜸·경락 수강생 모집

개강 일정
광주16기 | 7월 3일(토) 14:00-17:00

광주분원 위치 : 지하철 화정역 4번출구 추선회관 뒷편

* CH중국문화원은 침구학 및 대체의학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곳으로 의료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침구학 기본과정

- 자격 : 침구학에 관심있는 분 · 월회비 : 9만원(교재포함)
- 기간 : 매주1회 3시간 / 총 16주(4개월)과정
- 주요과목 : 전통침구학/침뜸기초/부탕/경락경络/ 비만침법/미용침법/중국수침/한방기초
- 신고처 : 전남 함평군 학교면 마산리 356 김현기(010-6790-8978)

연수과정

- 소정의 연수과정 수료후 침구계(3년) 종의계(5년)
걸엄증과 침구사, 종의사, 추나사 자격취득
- 외로 관련 업종의 소득증대효과, WTO개방 대비
- 세계 각국 해외 이민시 한방병원 설립 및 취업
- * 중동문화의 철학(2010.5.26) 대동국문화원 전문과정 출입자분들은 연락바랍니다.

CH중국문화원
www.wchina.co.kr
전국대표번호 : 1544-5359
광주분원 : 062)236-3516



용전들소리 재현행사

지산용전들소리 보존회는 5일 광주시 북구 용전동 광주전통공예문화학교 옆 들녘에서 용전들소리 재현행사를 가졌다. /최현기자 choi@kwangju.co.kr

초중고 건물 86% '석면검출'

교과부 첫 전수조사 ... 광주·전남 21곳 2등급

전국 대부분의 유치원과 초·중·고교 건물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석면은 건축자재·온전지 등으로 쓰였으나 석면 폐종과 폐암, 암성증피증 등이 사용된 건물이 시각적으로 훼손이 없거나 아주 국소적인 경우다.

그러나 22개 학교는 위험도 1등급으로 분류됐다. 이는 훼손 부위가 전체 면적의 10% 이상 또는 25% 이상 부분적으로 퍼져 있는 경우다. 1등급 판정을 받은 학교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 14곳, 부산 4곳, 강원 3곳, 충북 1곳이었다. 광주와 전남은 한 곳도 없었다.

697개교는 위험도 2등급으로 전체 훼손 부위가 10% 미만 또는 부분 훼

손이 25% 미만이었다. 광주는 18곳(초 13곳, 중 5곳), 전남은 3곳(초 1곳, 중 1곳, 고 1곳) 학교가 2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와 관련, 교과부 관계자는 "1등급 위험도 판정을 받은 22개교 중 20곳은 이미 개·보수를 마쳤다"며 "2등급 위험도 학교도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학생들이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학교의 석면 판리를 대체로 관리하는 경우다. 그러나 22개 학교는 위험도 1등급으로 분류됐다. 이는 훼손 부위가 전체 면적의 10% 이상 또는 25% 이상 부분적으로 퍼져 있는 경우다. 1등급 판정을 받은 학교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 14곳, 부산 4곳, 강원 3곳, 충북 1곳이었다. 광주와 전남은 한 곳도 없었다. 697개교는 위험도 2등급으로 전체 훼손 부위가 10% 미만 또는 부분 훼

전남 조선업계 활기

올 상반기 21척 수주 ... 작년 불황 탈피

세계 조선시장 침체와 밸류량 감소 등 불황의 직격탄을 맞았던 전남지역 조선업계가 활기를 회찾고 있다.

5일 전남도와 지역 조선업계에 따르면 단 한 척도 수주하지 못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 상반기 전남 조선업체의 수주실적은 모두 21척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삼호중공업이 상반기에만 모두 17척의 선박건조 물량을 확보했고 대한조선도 4척의 벌크선을 수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광조선도 1척의 화학물 운반선 수주 실적을 올렸다.

현대삼호중공업의 경우 수주선박 종류도 컨테이너선과 벌크선, 유조선 등으로 다양하고 수주액도 6억 달러에 육박하는데, 하반기에도 대규모 선박 벌주가 예고돼 있어 올해 수주 목표액(17억달러) 달성을 무난할 것으로 회사측은 보고 있다.

수주 상당이 진행중인 것도 많다.

대한조선의 경우 4건의 수주 상당이 이뤄지고 있으며 신안증권업계 4척의 벌크선 수주를 위한 상당을 진행 중이다. 이와 세광조선도 2건의 수주 상당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조선업계 침체로 전남 조선업체가 단 한 척도 수주를 하지 못했던 것을 고려하면 올 상반기 수주실적은 지역 조선업계가 활기를 회복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또 조선업체들은 하반기에도 유조선·벌크선·LNG 운반선 등을 중심으로 활발한 수주 상당을 펼쳐 물량 확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그동안 경기 침체로 큰 타격을 입었던 영암 대불산단 등 선박들로 제조공장들도 활기를 떨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족석·프리미엄 뷔페 ————— 아이엘리시아
Premium Buffet Malaysia
Deli NAVER 아이엘리시아 접속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

고품격 메뉴, 건강한 맛, 품격있는 서비스 (500석 원비)

- 풀 : 연인, 친구, 가족(2인식, 4인식, 6인식)
- 소모임(룸) : 직장회식,